

<표> 문화·오락 외국인직접투자 세부동향

(신고기준, 단위 : 건, 천 달러)

연도	2011년 1분기		2011년 2분기		2011년 3분기		2011년 4분기		2011년		2012년 1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문화·오락	10	199,669	6	6,393	12	21,287	16	241,965	44	469,315	15	8,328
문화·방송업	6	97,451	3	1,592	7	18,546	6	39,727	22	157,317	7	4,111
일반영화및 비디오제작업	3	10,662	1	93			1	30,000	5	40,755	1	169
만화영화및 비디오제작업					1	948			1	948		
광고영화및 비디오제작업					2	14,429			2	14,429		
영화및비디오제작 관련서비스업	1	45,200					1	400	2	45,600		
영화배급업												
공중파배급업												
공연업	1	41,500	1	1,400	2	3,029	2	6,880	6	52,809	1	1,100
기타문화·방송업	1	89	1	99	2	140	2	2,447	6	2,776	5	2,842
레포츠업	4	102,218	3	4,801	5	2,741	10	202,238	22	311,998	8	4,217
레포츠업	4	102,218	3	4,801	5	2,741	10	202,238	22	311,998	8	4,217

출처 : 지식경제부(2012), 외국인투자동향 및 통계

□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문화오락 외국인직접투자는 832만 8천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.8% 감소했으며, 레포츠를 제외한 문화방송업은 411만 1천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.8% 감소
 - 문화·오락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'12년 1분기 1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 증가
- '12년 1분기 레포츠를 제외한 문화방송업의 세부 투자업종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투자건수는 증가했음에도 투자액은 95.8% 감소. 이는 국내 콘텐츠산업 성장잠재력 등 긍정적인 국내 투자 환경요인에 비해 해외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영화 등 일부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위축
 - '11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총 6건은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으로 3건 (1,066만 2천 달러),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1건(4,520만 달러),

공연업 1건(4,150만 달러), 기타문화방송업 1건(8만 9천 달러)

- '1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총 7건 중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1건(16만 9천 달러), 공연업 1건(110만 달러), 기타문화방송업 5건(284만 2천 달러)

● '12년 1분기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문화오락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 서비스업 투자(8억 3,501만 달러) 중 832만 8천 달러이고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중에서 비중은 0.4%로 '11년 4분기에 비해 다소 높은 하락

※ '12년 1분기 전체 외국인직접투자(23억 4,630만 5천 달러) 중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35.6%로 전년동기대비 24.2%p 하락

※ '10년 4분기 이후 금액 기준 외국인 투자패턴은 서비스업 비중의 경우 '11년 2분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'12년 1분기는 큰 폭으로 하락. 투자건수는 시기별 비중의 등락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 집중된 외국인투자패턴이 지속되는 양상

- 문화오락 분야 투자액수는 '11년 2분기 이후의 상승세가 '12년 1분기에는 급락했으며, 투자건수는 '11년 2분기 이후 상승 기조

※ 제조업의 투자건수 및 투자액수는 '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각각 6.2%, 88.0% 증가, 서비스업 투자건수 및 투자액수는 32.5% 증가, 30.4% 감소